

지역 소식통



최준열 농업기술원장 정읍시 영농현장 방문

최준열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이 지난 9일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현안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영농현장을 방문했다.

이후 최 원장은 한국술도가(전통주 제조)에서 발효식품 체험장을 운영하는 강문찬 대표와 소통하며 농촌 체험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기술원과 시 관계자는 화담의 시간을 갖고 △주요 작물 재배 현황 △농산물가공센터, 안전성분석실, 농기계임대사업소, 스마트온실 운영 △치유농업 클러스터 △지향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등에 대한 업무공유를 했다.

최 원장은 "우리 농업은 스마트 농업이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농업의 산업화를 위한 투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활동 실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오는 6월까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과 이동이 크게 늘면서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특별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군은 관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농기계 출고시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야간에 농기계 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고취도 반사 스티커를 배부한다.

또 야간 운행 삼가, 교통법규 준수, 음주운전 금지, 전도·추락위험, 경사지 주행 금지 등을 집중 홍보한다.

군은 올 상반기에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사례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건강복지·경제일자리 행복도 상승

2024 고창군민 행복도 6.79점... 4년전 대비 5.76% 늘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민들의 행복도가 4년전(2020년)과 비교해 모든 영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선 8기 심덕섭호의 슬로건인 '모든 군민이 행복한 활력넘치는 고창'의 정책들이 주민 삶 깊숙이 투영되고 있다.

10일 고창군은 '2024 고창군민 행복도 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고창군 행복도는 6.79점(10점 만점, 7개 영역 종합)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조사한 2020년(6.42점) 대비 5.76%가 상승했고, 7개(안전환경, 주민참여, 건강복지, 문화여가, 경제일자리, 주거, 고창군특성지표) 모든 영역에서 행복도가 상승한 점이 눈에 띄었다.

가장 점수가 높은 분야는 건강복지(6.85점) 분야다. 이는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 공약사업인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지원사업,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사제, 출산장려금 및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사업 등이 군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외 경제일자리(6.79점) 부문도 행복도 상승을 이뤘다. 삼성전자(주), (주)지텍, (주)에스비퍼드 등 첨단 ESG 기업 유치와 고창사랑상품권 지원 확대(월50만원~70만원) 및 소상공인 용자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안전환경분야(6.09점~6.72점)는 2020년 조사 대비 행복도가 크게 늘어 주목받고 있다. 군에선 코로나19 민생안정을 위한 고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을 확대하고, 올해는 화재피해 주민 지원 사업을 신규로 시행중이다.

이밖에도 '2023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 추진에 따른 다양한 문화행사, 고창종합테마파크 등 대형숙박시

설 유치, 터미널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 덕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같은 주거정책 등 다양한 군민 맞춤형 정책 등을 행복도를 끌어 올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설문은 가장 최근 조사한 2020년도와 현재의 행복도를 비교·분석해 군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1~3월까지 성별·연령·지역별 인구 등을 고려해 고창군민 12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했다. 보다 심층적인 의견을 담기 위해 군민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그룹면접조사(FGD)도 함께 진행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민선8기 군민 맞춤형 정책이 고창군민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써 증명됐다"며 "이번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군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행복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1분기 관광객 작년 대비 36% 늘었다

고창군, 선운산도립공원·석정온천지구 등 관광객 10만 이상 늘어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 올해 관광객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어나면서 '1천만 관광도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지난 10일 고창군은 '지역 관광객 분석 빅데이터 용역(1분기)' 결과를 발표했다. 1분기 고창군 13개 관광지점을 다녀간 관광객은 238만123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174만6387명)과 비교해 무려 36%가 증가했다. 13개 관광지점 중에선 선운산도립공원이 90만6601명으로 방문객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도 29만명이 늘어나면서 전체 관광객 증가를 이끌었다.

군은 선운산 입장료 무료개방(지난해 2월부터)과 겨울방학 템플스테이, 봄 동백꽃 홍보가 이어지면서 전국의 관광객들이 선운산을 찾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석정온천지구 역시 겨울철 따뜻한 날씨로 인한 골프장 이용객 증가와 제2회 빛꽃축제 등으로 지난해(47만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61만명

이 찾았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세계유산 고창방문의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1천만 관광시대를 열었다. 올해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찾고 싶은 고창'을 목표로 '2024 세계유산도시 고창' 관광 홍보에 힘쓰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7곳 찾아 즐기는 스탬프투어'로 지역 관광 프로그램의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스탬프투어는 관소리박물관, 고인돌박물관, 동학(전봉준 장군 동상), 농악전수관, 운곡습지, 선운산, 탐사트랙별센터 총 7개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수화여행단과 현장체험학습 그룹에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며 '수화여행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역의 명소와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관광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 해뜰웰니스 타운, 올 지역활력타운 공모 선정

부안읍 선운리 일원에 사업비 354억원 투입 2027년까지 조성키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등 8개 중앙부처의 연계 협력사업인 2024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부안 해뜰웰니스 타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거·문화·복지가 결합한 주거지를 제공해 수도권-지방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9일에 1차 15곳의 시·군을 선정했으며, 종합평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10곳의 시·군을 선정했다. 부안군은 올해 3월 22일에 공모사업을 신청해, 4월 15일에 현장평가와 5월 8일 종합평가를 거쳐 10

일에 최종 선정됐다. 부안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부안읍 선운리 일원(해뜰마루 인근)에 사업비 354억과 사업면적 3만6,728㎡의 규모로 타운하우스 80세대, 스마트팜스테이션, 보타니 가든, 보타니 마켓, 하트플랫폼(아울렛센터)을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통하여 활력이 넘치는 부안의 거점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과 장가계시가 양 도시 간 우호협력증진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0일 부안군청에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정읍,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선정

통합 돌봄체계 구축 박차

정읍시는 보건복지부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정읍형 통합 돌봄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에 시행됨에 따라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체계의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이다. 복지부는 추진 의지가 높은 정읍시

를 비롯해 지자체 21곳을 뽑아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지난 7일 부산에서 열린 이번 사업 관련 설명회에 참석해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본계획 발표와 이에 따른 검토 후 제시 의견수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인재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돌봄교육, 지역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멘토링을 통한 현장 실무 벤치마킹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올해 5월부터 전담교

육과정 참여, 빅데이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기타 보건의료·장기요양 시범사업 참여 기회 제공 등 통합돌봄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돌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돌봄, 일상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정읍형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장가계시,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

양 도시 간 상생교류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장가계시(당서기 류거안)가 양 도시 간 우호협력 증진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0일 부안군청에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이날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류거안 장가계시 당서기, 구정지 주광주중국총영사 및 관계자 23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 도시 간 공동발전을 모색하였다.

주요 체결 내용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관광, 경제, 무역, 문화, 교육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류

와 협력을 추진하여 공동 번영 및 발전을 촉진하며, 각자의 매체를 통해 상대방 도시를 소개, 우호도시 관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두 지역의 상호 보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모색하며 여건이 조성되면 정식 우호도시 관계 구축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과 장가계시가 공동번영과 상호교류를 통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함께 누리고 발전하는 동반자로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의향서를 체결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